

8.15 직후 함흥지역 일본인 귀환단체의 조직과 활동*

변은진 _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교수

목 차

- I. 머리말
- II. 8.15 직후 함흥지역의 상황 변화
- III. 함흥지역 귀환단체의 조직과 개편
- IV. 함흥일본인위원회의 활동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8.15 직후 38도선 이북 일본인의 귀환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함흥지역의 귀환단체, 특히 함흥일본인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을 살펴본 것이다. 함흥에서 처음 조직된 귀환단체인 ‘함흥일본인세화회’는 구성이나 조직 형태면에서 식민지 조선의 사회관계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성격으로는 38도선 이북의 달라진 정세에 대응할 수가 없었기에, 1945년 12월 3일 세화회는 ‘함흥일본인위원회’로 전면 개조되었다. 그리고 일제패망 이전에 조선인과 동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이소가야 스에지나 마쓰무라 기시오 같은 인물이 전면에 나서서 귀환단체를 주도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조선 및 소련 측 관계기관과 소통과 협력에 주력하였다. 이를 통해 귀환 전까지 재류일본인과 피난민의 생활난 해결을 위한 각종 구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3212).

제활동, 집단피난민의 대량 소개(疏開) 과정에서 발생한 '부평 문제' 등의 일정한 해결, '북선전재자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탈출' 방식의 귀환 추진 등의 당면 과제를 풀어나갔다. 그 결과 공식 인양 발표 전인 1946년 3-6월 사이에 함경남북도의 일본인과 피난민 다수가 귀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비합법적인 탈출은 조선 및 소련 측 관계당국의 '암묵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이 시기 함흥일본인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된 '집단탈출'은 사실상 '반(半)합법적'인 성격을 띤 것이었다. 한편 이들은 산업기반 건설과 재건 없이는 조선인 동지들이 새로운 조국을 안정적이고 총체적으로 건설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일본인 기술자 잔류' 문제를 각종 지원을 받아내는 협상카드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는 조선인과 일본인 양측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주제어

함흥일본인위원회, 함흥일본인세화회, 북선전재자위원회, 이소가야 스에지, 마쓰무라 기시오, '집단탈출', 귀환단체

.....

I . 머리말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을 강점하여 식민지로 지배한 '제국'이었다. '제국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천황'의 항복 방송을 통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면서 패망을 맞이하였다. 이로 인해 그때까지 식민지 조선에서 '제국인', '식민자'로 살아온 수많은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의 지위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침략전쟁의 실패로 인한 조국의 패전 즉 '제국 일본'의 패망은 재조일본인 전체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계기로 작

용하였다. 그때까지 개인의 지위나 재산은 물론 살아서 일본으로 무사히 귀환하는 자체도 쉽게 보장될 수많은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특히 사할린과 함께 소련군 점령지역이 된 38도선 이북의 한반도 거주 일본인에게 이러한 현실은 강한 고난과 역경으로 다가왔다. 일단 조선 총독부나 '조선군' 사령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식민지배 네트워크가 해체되고 부동산을 포함한 사유재산의 점수와 경제활동 제한 등의 조치로 인해 이들의 생활환경은 급격히 변화해갔다.¹⁾ 일제패망 이후 해외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본국으로 귀환한 일본인은 당시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되는 7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약 92만 명이 한반도에서 귀환하였다.²⁾ 이 가운데 35%에 해당되는 32만여 명이 38도선 이북에서 귀환한 자들이며, 만주를 포함한 중국대륙의 귀환자들도 다수가 '피난민'이라는 이름을 갖고 38도선 이북지역을 거쳐서 귀환하였다. 38도선 이남지역과 달리 이들이 극심한 빈곤과 강제노동, 폭력과 살상, 억류 등의 '잔혹한' 체험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전쟁 피해자'로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집단적으로 왜곡된 이러한 인식이 전후 일본사회 내에서 이른바 '공적 기억'으로 자리잡아갔다는 점은 기왕의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그리고 이들의 기억이 재생산되는 배후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집단적 경험이 바로 38도선 이북 귀환자들의 '고난의 탈출' 과정이었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되어왔다.³⁾

1) 자세한 내용은 이연식, 「解放 直後 38以北 日本人의 居留環境 變化」, 『韓日民族問題研究』 14, 2008, III장(pp.176-210) 참조.

2) 森田芳夫, 『朝敵終戰の記録: 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巖南堂書店, 1964, p.828의 <표 93>. 일본 후생성 공식 집계로서 남조선이 596,454명, 북조선이 322,585명이다.

3) 김경남, 「재조선 일본인들의 귀환과 전후의 한국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21, 2008; 이승환, 「재조 귀환 일본인 피해자 아이덴티티 형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10; 이연식, 「전후 일본의 히키아게(引揚) 담론 구조- 해외 귀환자의 초기 정착과정에 나타난 담론의 균열과 유포」, 『일본사상』 24, 2013 등.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 학계에서는 38도선 이북의 일본인 ‘귀환’을⁴⁾ 실증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한반도 전역을 시야에 넣고 분석함으로써 38도선 이북 소련군 점령당국의 일본인 귀환정책과 그 과정을 알 수 있게 해준 이연식의 박사논문이 거의 유일하다.⁵⁾ 또 일본인 귀환자들의 귀환활동을 주도했던 세화회(世和會) 등 귀환단체에 대해서는 서울, 부산, 군산 등 38도선 이남지역을 다룬 최영호의 연구 외에는 없다고 할 수 있다.⁶⁾ 최근 필자는 38도선 이북의 일본인 귀환단체의 규모와 현황, 그리고 그 간부들의 과거 경력을 포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38도선 이북지역에 총 68개의 귀환단체와 286명의 간부진 현황을 파악한 바 있다.⁷⁾ 이와 같은 기존 연구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38도선 이북의 지역별 ‘귀환단체’를⁸⁾ 대상으로 구체적인 조직구성이나 귀환활동, 그 성격과 특징 등에 대해 정리한 연구는 전혀 없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38도선 이북 일본인의 귀환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처음으로 본격적인 사례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그 대상으로 먼저 함흥지역을 설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함흥지역은 1946년 봄까지의 사망자 수가 38도선 이북에서 가장 많았고, 둘째, 8.15 직후 함흥일본인세화회(咸興日本人世和會)를 조직했다가 곧바로 함흥일본인위

4) 일본에서는 민간인 귀환은 ‘인양(引揚, 히키아게(ひきあげ)), 군인 및 군속의 귀환은 ‘복원(復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김경남(2008), p.306의 각주 1).

5) 李淵植, 『解放後 韓半島 居住 日本人 歸還에 關한 研究』,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2009.

6) 최영호, 『일본인 세화회』, 논형, 2013; 최영호, 「군산거주 일본인의 귀환과정에 나타난 지역적 특성 - 세화회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26, 2014.

7) 변은진, 「8.15 직후 38도선 이북의 일본인 귀환단체 및 간부진 현황」, 『韓日關係史研究』 60, 2018.

8) 이 글에서는 재조일본인이 귀환 후 지역직장학교 등을 매개로 조직한 수많은 ‘인양자단체(귀환자단체)’와 구분하는 의미에서, 즉 한반도 내에서 “자신들의 순조로운 귀환 자체를 제1의 목적으로 했던 8·15 직후의 조직”에 한정한다는 의미에서 ‘귀환단체’라고 표기하였다(변은진(2018), p.202).

원회(咸興日本人委員會)로 개편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였고,⁹⁾ 또 이와 별도로 북선전재자위원회(北鮮戰災者委員會)를 설치하여 38도선 이북의 귀환활동을 주도하였다. 셋째, 소련군당국과 조선 측 관계기관, 그리고 재조일본인 귀환자들 사이의 복잡한 소통과 불신의 관계를 과거 조선인과 동지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회주의적 성향의 항일노동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전면에 나서서 비교적 ‘슬기롭게’ 해결해갔다는 특징이 있다. 넷째, 함흥에서의 이러한 활동은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가 편찬한 자료에서,¹⁰⁾ 특히 「북선전재현지보고서(北鮮戰災現地報告書)」(1946.12)를 비롯해 위의 인물인 이소가야 스에지(磯谷季次)나 마쓰무라 기시오(松村義士) 등의 글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이소가야는 1946년 1월부터 1년간의 귀환활동 과정을 자신의 일기로 남겼고,¹¹⁾ 또 귀국 후에는 상세한 회

- 9) 1945년 8월 18일 ‘경성내지인세화회’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조직된 ‘세화회’란 명칭은 38도선 이북에서도 그대로 통용되었다가 이후 명칭 자체에 문제를 느껴 ‘일본인회’ 등으로 개편한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함흥지역이 대표적이다.
- 10) 모리타 요시오가 편찬한 세 권의 자료집 가운데 『朝鮮終戰の記録: 資料編 第1卷 日本統治の終焉』(巖南堂書店, 1979)과 『朝鮮終戰の記録: 資料編 第3卷 北朝鮮地域日本人の引揚』(巖南堂書店, 1980)을 주로 활용하였다(이하 ‘森田芳夫(1979, 자료편 1)’, ‘森田芳夫(1980, 자료편3)’으로 약함).
- 11) 이소가야 스에지가 남긴 일기는 그의 다음 회고록에 수록되어 있다(변은진, 「재조일본인 노동자 이소가야 스에지(磯谷季次)의 체험을 통해 본 8.15와 귀환의 기억」, 『아세아연구』 제60권 2호, 2017, pp.546-547에서 재정리).

북조선에서 (1946.6)	1946년 4월 1~20일, 22~30일 / 5월 1~6일, 8~20일, 22~30일
조선총전기 (1980)	1946년 1월 31일 / 2월 1~8일, 16일 / 3월 1일, 12~16일, 18~19일, 21~22일, 24~29일 / 4월 9일, 12일, 17일 / 6월 1~2일, 4~7일, 13~15일, 17~20일, 23~26일, 28일, 30일 / 7월 10일, 12~13일, 15일, 18일, 22일, 24~26일, 28~29일 / 8월 8일, 10일, 12~13일, 30일 / 9월 16~19일, 26일, 30일 / 10월 1~2일, 5일, 7일, 10~12일, 21~22일 / 11월 10~11일, 15~18일, 20~22일, 24~25일, 27~28일 / 12월 16일, 19일, 21일, 25일 / 1947년 1월 4일
우리 청춘의 조선 (1984)	1946년 1월 25~27일, 29~31일 / 2월 1~2일, 4~17일, 19~21일, 23~28일 / 3월 1~5일, 7~16일, 18~31일 / 4월 1~30일 / 5월 1~6일, 5월 8~31일 / 6월 1~2일, 4~8일, 13~30일 / 7월 1~22일, 24~26일, 28~31일 / 8월 1~10일, 12~22일, 25~31일 / 9월 1~5일, 8~13일, 15~27일, 30일 / 10월 1~2일, 5~12일, 14~16일, 18~25일, 27~31일 / 11월 1~22일, 24~25일, 28~30일 / 12월 1~16일, 19일, 21일, 25~31일 / 1947년 1월 1일, 4일

고록을 여러 권 출판했기 때문에 비교적 그 상황을 파악하기에 용이한 편이다.

Ⅱ . 8.15 직후 함흥지역의 상황 변화

8.15 직후 함흥지역 일본인의 상황 변화를 초래하게 된 출발점은 소련군의 한반도 진공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45년 8월 8일 일본에 공식 선전포고를 한 소련군은 8월 9일 곧바로 한반도로 들어와 웅기(雄基)·나진(羅津)을 공습했으며 동북 국경지방으로 진격해나갔다. 8월 11일 그 일부가 함북 경흥(慶興) 방면에서 회령(會寧)으로 진격을 개시하였다. 해군은 나진과 웅기에 약 3,000명을 상륙시키고 8월 13일 청진 상륙을 감행하였다. 결국 일본정부는 8월 10일 ‘국체호지(國體護持)’를 조건으로 포츠담회담 선언의 수락을 연합국에 신청했으며, 8월 15일 종전조칙(終戰詔勅)이 내려졌다. 이미 8월 9일에 중국 신경(新京, 현 장춘)에서 한반도 북부로 첫 피난열차가 출발했으며, 8월 14일 성진(城津)의 피난민 열차가 처음으로 함흥역(咸興驛)을 거쳐 남하한 것을 시작으로 계속 피난열차가 내려왔다. 8월 15일 당일에는 함북도청의 간부들은 거의 다 청진을 떠나 피난길에 오른 상태였다.¹²⁾

38도선 이남과 달리 38도선 이북에서는 ‘계획송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의 탈출’이라고 칭해질 정도의 귀환 상황이 연출되었고, 늦어진 귀환만큼 잔혹한 한반도 체류의 경험이 계속되었다. 군인이나 경찰관 가족 등 극히 일부는 곧바로 기차를 타고 피난을 했지만, 대다수의 일본인은 수용소 등에서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기차는 군인·경

12) 森田芳夫(1964), p.987.

찰·관료의 가족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피난민은 기차를 이용할 수도 없었다. 만주에서 온 피난민을 포함해 1945년 8월부터 1946년 9~10월경까지 민간인 사망자 수만 최소한 22,805명이 넘는데, 합남이 12,408명(합흥 6,26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¹³⁾ 1946년 봄 이전에 부분적으로 집단탈출에 성공한 사례도 있으나, 대다수 일본인은 1946년 봄 이후에야 귀환이 가능했다.

정전 명령과 동시에 38도선 이북과 만주의 일본인은 한순간에 유망민(流亡民)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패전국민으로서의 ‘피난, 철수’라는 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실제로는 “더 이상 파렴치할 수 없는 도주, 실종, 현기증 나는 행위”로 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패전 이전에 일본질소비료주식회사 아오지인조석유공장의 연구과장을 지낸 시바타 겐조(柴田健三)가 “관리·군인 등의 독선적인 태도가 마지막까지 일반 동포에게 재앙을 불러일으켰다. … 이리하여 뒤쳐진 일반국민은 아무도 이끌어줄 사람이 없이, 황야에 버려진 양떼들처럼 우왕좌왕하다가 우르르 남쪽으로 밀려들기 시작해 합흥으로 흘러들어온 것이다”라고¹⁴⁾ 언급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8.15 직후 합흥지역 조선인 항일운동가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일제패망과 함께 곧바로 도용호(都容浩)를 위원장, 방치규·이증림(李增林) 등을 위원으로 하여 ‘건국준비위원회 합흥지부’가 결성되었다. 8월 16일에는 합흥형무소에 수감되었던 200여 명의 ‘정치범’ 즉 항일운동가들이 석방되었다. 송성관(宋成寬)·김재규(金在奎)·박경득(朴庚得)·문회표(文會彪)·최호민(崔浩敏)·주치욱(朱致旭)·한지복(韓祉福)·주중순(朱鐘淳)·주계섭(朱啓燮)·김호철(金浩哲)·주문정(朱文禎) 등 석방된 수많은

13) 森田芳夫(1964), p.894. <표 95>의 수치를 합산했음.

14) 柴田健三, 「興南赴任から積水転任まで三十年間の日本窒素生活を顧みて」, 『日本窒素史への証言』 13, 日本窒素史への証言刊行委員会, 1981, p.87.

항일운동가들은 그날 밤 곧바로 모임을 가지고 가칭 '함경남도인민위원회좌익'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조선독립을 위한 제반 조건이 갖춰졌다는 선전문을 여러 곳에 붙이고, 단천·북청·홍원·정평·영흥·문천·고원·원산 등 함남 각지의 동지들을 규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3일 만에 함흥에서만 100명 정도가 결집했으며, 위 조직은 '함경남도공산주의자협의회'로 발전하였다. 이들은 곧바로 흥남화학노동조합이나 함흥지구금속노동조합 등 대중조직의 재건에 착수했으며, 함흥 근처의 농촌에는 농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¹⁵⁾ 이 함경남도공산주의자협의회와 도용호 등의 함경남도 건국준비위원회는 '조선민족 함경남도 집행위원회'라는 하나의 단체로 통합되었고, 이후 아래와 같이 소련군의 인정을 받고 '함경남도인민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소련군은 8월 23일부터 신속히 무장해제를 실시하여 24일에는 이미 38도선 이북의 군사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함흥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정치적 움직임도 크게 변화시켰다. 소련군 제25군관사령관 치스차코프(Иван Михайлович Чистяков)와¹⁶⁾ 소장 샤닌(Шанин Григорий Иванович)이 비행기를 타고 함흥으로 들어온 것은 1945년 8월 22일이었다. 도착 당일에는 8.15 당시 함남도지사였던 기시 유이치(岸勇一)와 몇 차례에 걸친 사전 절충을 통해 “관내 치안 유지는 물론 행정사무 일반에 대해서는 종래대로 지사 및 그 부하직원이 집행할 것”이라고 협정하고 서명하였다. 하지만 다음날인 8월 23일 소련군은 조선인 측에서 도정(道政)을 담당하는 조직이 통합되어 있음을 알고 기시 도지사와의 협

15) 磯谷季次, 『朝鮮終戰記』, 未來社, 1980, pp.121~122; 이소가야 스에지, 『우리 청춘의 조선』, 사계절, 1988, p.211.

16) 소련 측 인명이나 직위는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에서 제공하는 「러시아문서보관소 소장 해방 후 한국사회 관련자료의 수집 번역 및 주해(1945~1950)」 사업(2013~2016, 동국대학교)의 최종결과물에서 확인 후 기재하였다. 이하의 인명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확인을 거쳤다.

정을 곧바로 전면 폐기하였다. 그리고 조선인 인민위원회를 결성하여 이들에게 함경남도의 행정사무 일체를 인계한다는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¹⁷⁾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월 23일 함남공산주의자협의회를 대표하여 송성관·임충석 등 4인, 건국준비위원회 함흥지부를 대표하여 도용호와 최명학(崔明鶴) 2인, 즉 총 6인의 대표가 통역을 대동하고 치스차코프 대장을 찾아가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함경남도 임시인민위원회’ 구성이 결정되어, 과거 일본의 여러 기관을 인민위원회로 위양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통달하였다. 공산주의자협의회 측과 건국준비위원회 측이 각각 11인씩으로 총 22인의 위원을 구성하여 이들의 협의 아래 접수 등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그 날 밤 치스차코프의 명으로 함흥천주교회당에서 도용호·송성관·최명학 등 3인의 인민위원회 대표, 치스차코프와 샤닌 등 23명의 소련 측 인사, 일본인 측에서 기시 도지사 이하의 부장·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함경남도 인민위원회가 기시 지사로부터 ‘정권 위양서’를 넘겨받았다.¹⁸⁾ 그리고 임시인민위원회는 8월 30일 ‘함경남도인민위원회’로 개칭하여 정식 발족하였다.¹⁹⁾

이와 같이 정치적 상황이 조금씩 안정화되어갔지만, 함흥 일본인의 생활은 겨우 1개월 만에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변화하였다. 함흥의 거리는 온통 만주와 함경남북도, 그것도 북부나 고지대 혹은 변경지구에서 도망쳐 내려온 피난민들로 가득 찼다. 일제패망 직전에 12,000명 정도였던 인구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그 10배인 8만 명으로 늘어났고, 이들은

17) 1950년 11월 岸勇一이 집필한 글 중에서(『同和』 186호, 1963.6 수록), 森田芳夫(1979, 자료편1), p.313.

18) 磯谷季次(1980), pp.121~122; 이소가야 스에지(1988), p.212.

19) 咸興日本人委員會/北鮮戰災者委員會, 「北鮮戰災現地報告書」, 北鮮戰災者委員會本部, 1946.12, 森田芳夫(1980, 자료편3), p.297.

집도 직장도 없이 함흥 시내를 떠돌았다. 함흥의 일본인 마을은 완전히 아수라장에 기아의 마을로 변하였다. 8.15 직후 이소가야 스에지가 장진(長津)의 제재소에서 목재부문 노동자 조직의 재건을 마무리하고²⁰⁾ 한 달 남짓 만에 함흥으로 와서 제일 처음 목도한 광경은, 이상한 거적에 쌓인, 아사와 병사로 죽어간 일본인 시체를 실은 짐수레가 계속 시외로 옮겨지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는 “그 삶들은 ‘종전(終戰)’ 후 내가 처음으로 두 눈으로 똑똑히 본 ‘패전국민’을 상징하는 일본인의 모습”이라면서,²¹⁾ 1946년 6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함북지방으로부터의 피난민은 당시 함흥의 구 유곽 터에 집단적으로 수용되어 그 생활 상태는 그야말로 지옥생활을 방불케 했기에 하루도 그대로 방치해둘 수 없는 상태였다. 그들은 모두 거의 무일푼인데다가 12월 17일까지 배급된 쌀 한 톨조차 얻지 못했었기에 그 빈궁은 그야말로 비참 그 자체였다. 더구나 9월쯤부터 이 집단피난민의 이주구역이던 구 유곽을 중심으로 극심한 전염병이 창궐하였다. 이로 인해 점차 피난민이 죽어나가, 9월 한 달에 984명, 10월에 1,104명, 11월에 1,170명, 12월에 1,149명으로 점점 수를 늘려, 이 4개월 동안 4,407명, 하루 평균 36명의 사망자를 내어, 일본인 전체가 그야말로 대중적 사할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²²⁾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는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에 진주한 미·소 점령군의 입장과 정책이 달랐던 데서 비롯된 면도 있었다. 한반도에 진주한 미·소 점령당국은 모두 해외 거류 일본인의 귀환과 잔류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재산권 행사도 금지시켰다. 귀환의 시

20) 이 일은 일제패망 직전에 장진의 ‘임충석(林忠錫) 그룹’이 이소가야에게 부여한 임무였다.

21) 이소가야 스에지(1988), p.222.

22) 磯谷季次, 「北朝鮮にありて」, 1946; 森田芳夫(1980, 자료편3), p.374.

기·순서·방식 등도 점령당국이 결정하였으며, 기술자 등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는 주요 인적자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점령당국과 현지인에 의한 ‘유용(留用) 정책’이 실시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미·소의 일본인 귀환정책은 상당히 달랐다. 미국은 군인·군속을 우선 순위로 하여 전체 일본인을 무조건 귀환시킴으로써 식민지와 식민모국을 철저히 단절·봉쇄시키는 정책을 취했던 반면, 소련은 38도선 이북지역을 비롯해 만주·사할린·쿠릴열도의 일본인 이동을 기본적으로 금지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다가 1946년 10월 중순경에서야 소련군당국이 북조선 일본인의 정식 ‘인양(引揚, 히키아게)’을 발표했고, 12월 19일 「소련점령지구 인양에 관한 미·소 간 협정」이 체결되어 공식적으로 일본인 귀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²³⁾

이처럼 “8.15 직후 38도선 이북의 상황은 38도선 이남과는 많이 달랐다. 첫째는 사회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소련이 점령군으로 진주하고 있었으며, 둘째는 8.15 직후 각지에서 결성된 조선인의 지방인민위원회 및 공산당의 활동을 소련군당국이 인정하고 있었다. 셋째는 만주와 중국대륙으로부터 수많은 일본인 군인·군속을 비롯해 민간인 피난민까지 대거 유입되었고 당국은 이들을 격리 수용한 상황”이었다.²⁴⁾ 소련군당국의 정책으로 인해 조선사회 내의 정치사회적 혼란은 38도선 이남에 비해 빨리 안정화되었지만, 재조일본인 사회의 생활과 귀환 문제는 완전히 반대로 나타났다. 소련군당국은 초기에는 일본인을 전쟁포로나 전리품으로 취급하여 기본적으로 ‘귀환 금지’ 정책을 펼치는 등의 정책을 취하기도 했다.

23) 이연식(2009), pp.8~10.

24) 변은진(2018), pp.229~230. 당시 38도선 이북 일본인의 귀환 정세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 글의 2장에 실린 연표(pp.207~210) 참조.

Ⅲ. 함흥지역 귀환단체의 조직과 개편

1. 함흥일본인세화회의 조직과 한계

8.15 직후 함흥에서 처음 조직된 일본인 귀환단체는 ‘함흥일본인세화회’이다. 함흥일본인세화회는 1945년 8월 24일 준비회합을 거쳐 27일에 발기인회가 조직되었으며, 8월 29일 정식으로 결성되었다. 세화회의 기구는 “본부에 재정부 외 6부를 두고, 말단으로의 연락기관으로 종래의 정회(町會) 제도를 활용하여 시내를 21개 방면(方面)으로 나누어 활동력 있는 유망한 인재를 배치하여 방면위원으로 위촉”하고 활동을 개시하였다.²⁵⁾ 이를 보면, 초기의 세화회 조직은 일제말 전시체제기의 방면제도를 그대로 활용하려는 안이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함흥일본인세화회의 초대회장은 전 함흥상공경제회(咸興商工經濟會) 회두(會頭)였던 이노우에 기요시(井上清)였다가, 3일 만인 9월 1일에 니와세 노부유키(庭瀬信行)로 교체되었다. 니와세는 1920년대부터 오랫동안 조선총독부 내무국 지방과 촉탁으로 근무하다가 8.15 직전 함흥부윤(咸興府尹)까지 지낸 전형적인 관료 출신이었다.²⁶⁾ 이러한 니와세가 종전 이전에 공산주의 계통의 항일운동가들이 중심이 된 조선공산당이나 함남인민위원회, 그리고 소련군당국과 교섭하여 일본인의 안전한 귀환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래 <표 1>을 보면 함흥일본인세화회는 8월 29일 설립 이래 40여 일 만에 4명의 회장이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두 며칠 만에 회장직을 그만둔 것이었다. 일제강점에서 막 해방된 조선의 분위기에서, 더구나 조선공산당과 소련군당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38도선 이북에서, 아

25) 「北鮮戰災現地報告書」(1946); 森田芳夫(1980, 자료편3), p.305.

26)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조선총독부직원록 DB 참조.

래 <표 2>에서 보듯이 8.15 이전에 관료나 경제인을 지낸 유력한 ‘식민자’를 중심으로 다수 일본인의 무사 귀환을 위한 ‘세화(世和)’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되기 어려운 분위기였던 것이다.²⁷⁾

<표 1> 함흥일본인세화회의 회장 교체 상황

명칭	1대	2대	3대	4대
함흥일본인세화회 (1945. 8. 29 설립)	井上清 (경제인)	庭瀬信行 (관리)	土谷惟一 (관리, 경제인)	林良作 (경제인)
	8월 29일	9월 1일	9월 28일	10월 10일

<표 2> 함흥일본인세화회 회장의 일제강점기 대표경력

이름	소속 및 지위	일제강점기 대표경력
이노우에 기요시 (井上清)	함흥일본인세화회 대표위원, 초대회장	함흥상공경제회 회두
니와세 노부유키 (庭瀬信行)	함흥일본인세화회 2대 회장	조선총독부 내무국 지방과 촉탁, 함흥부윤
土谷惟一 (1881~?)	함흥일본인세화회 대표위원, 사무국장 / 3대 회장	육군수의학교 졸업, 조선주둔군 수의부 근무, 함경남도경찰부 위생과 촉탁. 함흥시장주식회사 사장. 함흥재향군인 분회장, 함흥지방재향장교회장, 함흥상공경제회 사무국장
하야시 료사쿠 (林良作, ?~?)	함흥일본인세화회 4대 회장	林商店 사장, 丸は精米주식회사 사장, 함경남도양곡주식회사 이사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함경남도검찰부의 주인규(朱仁奎)는, 과거 일본질소비료주식회사 흥남공장의 노동자로서 조선인과 함께 항일 운동을 하다가 거의 10년을 감옥에서 보낸 이소가야 스에지를 일본인 귀환활동에 끌어들었다. 이소가야와 같이 항일노동운동의 경력이 있는 마쓰무라 기시오가 세화회에서 일본인의 귀환 활동을 돕고는 있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²⁸⁾ 그렇다고 새로운 국가의 건설에 몰두하고 있던

27) <표 1>과 <표 2>는 변은진(2018), p.213 및 p.222에서 재정리하였다.

조선인 활동가들이 일본인 피난민 구호나 귀환 문제에까지 진력할 만한 여력은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믿을 만한 동지인 이소가야를 세화 활동에 합세시켜서 당면한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던 것이다.

주인규는 이소가야에게 이미 함흥에 일본인구원회 즉 함흥일본인세화회가 만들어져 있지만 간부들이 모두 일제패망 이전에 ‘국가주의자들’이라서 그들과 일본인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기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그러니 당장 회장이나 간부를 맡지는 않더라도 함께 일해 준다면 공산당이든 인민위원회든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 처음으로 목격 한 함흥일본인세화회의 상황에 대해 당시 이소가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함흥일본인세화회는 패전 직후 함흥 재주 12,000 일본인의 물심양면에 걸쳐 구제와 질서유지를 위해 설립된 것이었다. 패전에 의한 정권 및 경찰권의 조선 측으로의 이행은 스스로 일본인의 무정부 상태를 초래해 방지하면 수습할 수조차 없는 혼란에 빠지는 것은 명백했다. 새롭게 수립된 조선인에 의한 행정기구는 확고한 기초를 가지지 못해 그 힘은 아직 약하고 일본인은 자신들의 구제와 생활질서 유지를 스스로의 힘으로 행해야만 했다. (중략) 그러나 함흥시내의 일본인 문제가 점점 복잡 곤란한 정도를 더해 조선 측 행정기관과의 절충이 빈번하게 됨에 따라 세화회의 성격이 그 구성분자인 구 관리, 구 국가주의적 존재라서 날카롭게 비판당해 사업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28) 모리타 요시오는 ‘일본인위원회의 개조와 함흥시당부 일인부(日人部)’를 서술하면서 “함흥에 이색적인 2명의 일본인이 있다. 함흥합동목재회사 준사원 이소가야 스에지 씨와 니시마쓰구미(西松組)의 사원 마쓰무라 기시오 씨이다.”라고도 입부를 시작하였다(森田芳夫(1964), p.442). 물론 이들 외에도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286명의 38도선 이북 귀환단체 간부들 가운데(변은진(2018), pp.217~228의 표 ‘38이북 귀환단체 간부진 조사’, 일제강점기에 좌파 성향을 가졌거나 친조선적인 인물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평양일본인회의 藤井鉄蔵·香川憲一·道下正雄, 흥남일본인거류민회의 菅公義·江藤茂·中西進, 원산일본인세화회의 湊川歳秋·柏眞一·中村勳 등을 들 수 있다.

않아, 9월 28일에는 庭瀨 회장이 곧바로 퇴진하고 土谷이 다시 대표가 되었지만 2주 후에는 林良作이 회장이 되었다.²⁹⁾

주인규는 곧바로 이소가야에게 도검찰부에서 발부하는 신분증명서를 만들어주었다. 여기에는 “이 증명서를 지참하는 자는 우리의 동지이며 각 기관은 필요에 따라 충분한 편의를 주어야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어서 이소가야는 15년 만에 재회한 옛 동지 마쓰무라로부터 그동안의 상황을 듣고 함께 세화회 간부를 만나 앞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하였다. 그는 “제국주의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희생자를 위해서” 세화회 일을 돕겠다고 생각하였다.³⁰⁾ 당시 마쓰무라가 이소가야에게 소개한 세화회 간부는 『북선매일신문(北鮮毎日新聞)』 편집장이었던 하치야 겐지(八谷賢次), 전 함흥철도국장 도도로키 겐지로(轟鎌次郎),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 함흥지국장을 지낸 라쿠신(樂愼) 등 4명이었다.³¹⁾ 이렇게 해서 이소가야는 1945년 10월경부터 일본인의 세화 활동에 관여하였고, 훗날 세화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조선 측 각 기관을 연결하는 파이프 역할”이었다고 정리하였다.³²⁾

물론 함흥일본인세화회와 같은 한계는 이 시기 38도선 이북지역 귀환단체들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사실상 8.15 직후에 북쪽에서 귀환단체를 이끌면서 귀국을 주도했던 일본인의 절대 다수가 경제인과 회사원, 관리에 집중되어 있다. 또 이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도회·부회·면협의회·학교평의회 등에서 활동한 정치인이기도 했다. 기존에 ‘식민자 사회’의 상층을 구성했던 경제인과 관료 집단 즉 기존에 ‘지방유지’로 불리

29) 磯谷季次(1946), pp.374~375.

30) 이소가야 스에지(1988), pp.224~225.

31) 위와 같음. 이 책에는 이 일본인들의 인명 독음이나 직업 등이 다소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 자료들을 참조하여 수정하였다.

32) 이소가야 스에지(1988), p.228.

던 일본인이 자신들의 귀환활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당시 38도선 이남과 상당히 다른 조건에 처해 있던 북쪽의 일본인 귀환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³³⁾

2. 함흥일본인위원회로의 개편

1945년 말 현재 함흥에는 기존의 재주자와 피난민을 합해 35,000명에 달하는 일본인이 거주하게 되었다. 함흥일본인세화회에서는 당면한 많은 문제들, 즉 의료·식량·주거 등을 비롯하여 피난민 구제와 조선 측의 여러 기관들로부터 명령받은 대규모 근로동원의 편성 등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세화회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 강력한 실천력을 부여할 필요로 인해 함흥일본인세화회의 기구를 근본적으로 재편성하여 ‘함흥일본인위원회’로 바꾸고 “함흥 일본인의 생활을 결코 강력한 운동으로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³⁴⁾

함흥일본인세화회가 함흥일본인위원회로 정식 개조된 것은 1945년 12월 3일이었다. 사실상 개조라기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조직의 발족이었다. 세화회의 방면위원회도 ‘지구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개칭하였다. 기존의 정회 등을 적극 활용하면서 28개의 지구위원회로 나누어 위원장, 반장 등을 두었다. 개편의 특징으로는 첫째, 종래 함흥재주자와 피난민으로 나누어진 별개의 조직을 하나로 만든 것이며, 둘째는 지방교통국장·경방단장(警防團長)·근로과장 등 기존의 일본인 유력자 가운데 능력 있는 인재들을 결집시킨 것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조선인 측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이소가야나 마쓰무라 같은 신망 있는 일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들이 “양심적인 인물이라고 보증”함으로써 소련군당국의 승인을 얻어

33) 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간부들의 현황은 변은진(2018), 4장 참조.

34) 磯谷季次(1946), p.375.

냈다.³⁵⁾

당시 마쓰무라나 이소가야는 ‘조선공산당 함흥시당부 일본인부’를 조직해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 일본인부가 결성됨으로써 사실상 재조일본인에게는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과 의료 등에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일본인부와 함흥일본인위원회가 표리일체의 관계를 이루며 활동하게 되었다. 이들은 스스로가 ‘조선공산당 당원 자격을 가진 일본인’이 되어 철저한 휴머니즘의 관점을 가지고 과거 일본의 침략주의 및 제국주의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독립한 조선의 새로운 국가건설을 적극 지지하는 방향에서, 말하자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인민위원회나 소련군당국과의 소통과 교섭에 주력하였다. 이는 개편 과정에서 일본인부가 함흥일본인위원회 측에 내걸었던 다음 네 가지 조항의 ‘행동이념’에서 잘 드러난다.

1) 국가주의적 침략사상을 철저히 배제하고 자유·평등의 세계에 기초해 새로운 정의와 우애와 통일의 기초 위에 함흥재주 일본인을 하나의 생활공동체로 간주하고, 여기에 전체의 행동정신을 부여하여 전체 생활을 새로운 진정한 민주적 생활이념 아래 재편성한다.

2) 일본인의 전 생활을 지배하고 있던 이른바 노예교육에서 해방시키며, 조선 잔류자는 조선에서의 통일된 인민주권 수립에 정진·협력함과 동시에 조선 신문화 건설의 강력한 한 추진력이 되고, 또 일본 귀환자는 일본의 악질적이고 음험한 지배계급을 타도하고 인민주권 국가 수립을 위한 전사(戰士)라는 사명을 갖는다.

3) 상호부조 정신을 기초로 일본인의 물심양면에 걸친 생활 재건의 노력에 전폭적인 지지 협력을 보내며, 식량·연료·침구 등의 알선, 배급·의료방법의 확보, 취직 알선 등 여러 문제를 정력적으로 해결한다.

35) 森田芳夫(1964), p.444.

4) 일본인 공동체에서 온갖 제국주의적 잔재를 철저히 제거함과 동시에 향후 이러한 요소의 발생을 초래할 만한 경제적 조건 및 민족적 편견을 극복하고 자유와 평화, 인류 평등의 세계관에 기초한 생활질서·사회도덕·정치이념을 확립함을 최고이자 최종의 목적으로 한다.³⁶⁾

위의 글은 일본인 스스로를 계몽시키고 ‘일본인 문제’를 함흥인민위원회나 소련군사령부 등 관계기관에 이해시키기 위해 조선공산당 함흥시당부 일본인부에서 발행하던 주간지 『신생(新生)』에도 실렸다. 『신생』 편집의 기본정신은 “꺼림칙한 과거와 결별하고 전후에 찾아온 변화하는 세계에 조선주재 일본인의 눈을 돌리게 하여 새로운 자아를 세우는 데 기여토록 하는 것”이었다.³⁷⁾

이렇게 하여 함흥일본인위원회는 소련군당국, 도·시 인민위원회, 조선공산당 모두의 지지와 승인을 거친 ‘공인단체’로 활동하게 되었다.³⁸⁾ 초대 위원장은 일본에서 아키타광산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광산관계 실무에 종사하다가 일제 말에는 함흥에서 된장·간장공장을 경영하던 효도 데쓰조(兵頭鉄蔵)가 맡았다. 그가 1~4대 위원장을 맡았고, 5~6대 위원장은 이소가야 스에지가 맡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함흥일본인위원회의 현황과 조직 구성, 위원장·부위원장을 비롯한 간부진의 과거 경력 등을 먼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³⁹⁾

36) 森田芳夫(1964), pp.444~445.

37) 이소가야 스에지(1988), pp.237~238 및 磯谷季次(1946), p.383. 일본인부 사무실에서는 매일 밤마다 라디오방송을 청취하여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였다. 잡음이 너무 심해서 몇 명이 동시에 청취하고 각자 속기한 것을 종합해 교정하는 방식으로 정리했고, 이는 『신생』을 통해 각 방면에 전달되었다.

38) 『北鮮戰災現地報告書』(1946), p.306.

39) <표 3>과 <표 4>는 변은진(2018), p.213 및 pp.222~223을 참조하여 재정리하였다.

〈표 3〉 함흥일본인위원회의 현황

명칭	설립	지역	회장/대표	참고
함흥일본인위원회	1945.12.3	함흥부	兵頭鉄蔵 (1~4대) 磯谷季次 (5~6대)	선언·강령·취의서·규약 작성 / 간부진 이소가야와 마쓰무라가 조선공산당 함흥시당부 일본인부에 당원으로 참여하여 인민위원회·소련군당국과 교섭하면서 활동 / 기관지 「新生」과 「북선전재현지보고서」 등 발행

〈표 4〉 함흥일본인위원회 회장 및 간부진의 일제강점기 대표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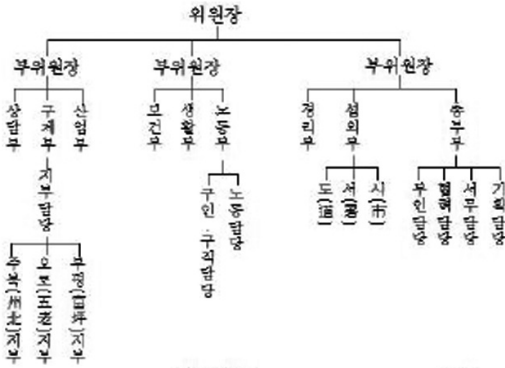
이름	소속 및 지위	분류	일제강점기 대표경력
효도 데쓰조 (兵頭鉄蔵, ?~?)	함흥일본인위원회 1~4대 회장 / 북선전재자위원회 위원장	경제인	秋田광산전문학교 졸업, 중전 당시 된장·간장공장 경영(양조업)
하치야 겐지 (八谷賢次, ?~?)	함흥일본인위원회 부위원장 / 북선전재자위원회 부위원장·사무국장	언론인	북선매일신문사 편집국장, 함남신보 편집장
도도로키 겐지로 (轟謙次郎, ?~?)	함흥일본인위원회 부위원장 / 북선전재자위원회 부위원장	관리	조선총독부 철도국 기사·주임·계장, 함흥지방철도국 기사, 함흥철도국장(?)
近藤時次郎	함흥일본인위원회 부위원장 / 북선전재자위원회 부위원장	경찰	함북도경찰부 청진경찰서 청진피난민단장, 청진경방단장 * 함북 대표로 유도대회 다수 출전, 수상
라쿠신 (樂愼, ?~?)	함흥일본인위원회 총무부장 / 북선전재자위원회 위원	언론인	오사카마이니치 함흥지국장, 매일신보 함흥주재원(?)
鹽田績 (1914~?)	함흥일본인위원회 위원장부 / 북선전재자위원회 사무차장	회사원	원산중학 졸업, 咸南合同電氣會社· 北鮮合同電氣株式會社 근무
다카쓰키 료타 (高月亮太, ?~?)	함흥일본인위원회 東병원장	의료인	
平本直來	함흥일본인위원회 고아수용소장	종교인	포교사. 原州本願寺, 眞宗本願寺派 북청포교소·홍남포교소 등

나가야 도시오 (長屋俊雄, ?-?)	함흥일본인위원회 섭외부장 / 북선전재자위원회 위원	경제인	철물상(金物商)
眞宗秀夫	함흥일본인위원회 산업부장 / 북선전재자위원회 위원	관리 경제인	토목청부업, 함경남도 내무부 토목기수, 합자회사 정중공업 사장, 함흥공업주식 회사 이사
浜田芳雄	함흥일본인위원회 구재부장	경제인	청진에서 酒類食料雜貨店, 청진피난민단
上野謙吉	함흥일본인위원회 보건부장 / 북선전재자위원회 위원	관리	총독부 철도국 서기, 교통국 제1근로과장
徳田實	함흥일본인위원회 생활부장 / 북선전재자위원회 위원	경제인	토목청부업, 함흥토석판매주식회사 이사, 합자회사 덕진상회 사장
森政市	함흥일본인위원회 근로부장 / 북선전재자위원회 위원	경제인	토목청부업, 반전상점주식회사 이사, 흥아목재주식회사 사장
川口仁作	함흥일본인위원회 상담부장	경제인	藥種商
大垣三郎	함흥일본인위원회 경리부장 / 북선전재자위원회 위원	관리 경제인	식산은행 지점장 대리
須藤芳壽	함흥일본인위원회 부평일본인회지부(1 945.12) 2대 지부장	미상	
이소가야 스에지 (磯谷季次, 1907~1998)	함흥일본인위원회 위원장(1946.4.1)	회사원	일본질소비료공장 노동자, 함흥합동목재회사 준사원 * '제2차 태평양노동조합 사건'으로 투옥
마쓰무라 기시오 (松村義士男, ?-?)	함흥일본인위원회 위원	회사원	西松組 사원 포비행장 등 댐 건설현장에 서 중국인·조선인 노동자 관리, 나남주둔 일본군 이등병 * '제1차 태평양노동조합 사건'으로 투옥 * 소련군 포로가 되어 고무산 이동 중 도주

川和田秋彦	함흥일본인위원회 부평일본인회지부 제6분회 분회장	관리	평북 의주군 屬, 함북 내부부 屬
本田親人	함흥일본인위원회 부평일본인회지부 제6분회 부분회장	관리	총독부 산림부 기수, 증강진영립서·입업시험장 기수
村尾勳	함흥일본인위원회 부평일본인회지부 제7분회 부분회장	미상	
前原準	함흥일본인위원회 부평일본인회지부 제9분회 분회장	경찰	북청서·호인서 경부보

일본인위원회구성도표

(표1)



지역구위원회구성도표

(표2)



- 지역구위원회-차관관청에 상설로 설치하여 활동
- 지역구위원회-관할지역마다 1명씩 1명씩
- 지역구위원회-지역구별로 1명씩 1명씩
- 지역구위원회-지역구별로 1명씩 1명씩
- 지역구위원회-지역구별로 1명씩 1명씩
- 지역구위원회-지역구별로 1명씩 1명씩
- 지역구위원회-지역구별로 1명씩 1명씩
- 지역구위원회-지역구별로 1명씩 1명씩
- 지역구위원회-지역구별로 1명씩 1명씩
- 지역구위원회-지역구별로 1명씩 1명씩

· 이소가야 스에지가 작성한 함흥일본인위원회 조직표(출전: 이소가야 스에지(1988), p.249; 「北鮮戰災現地報告書」(1946), p.338)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함흥일본인위원회로 전환한 후에는 이소가야나 마쓰무라 등이 조선공산당 당원의 자격으로 옛 동지들과의 사적인 관계망까지 동원하여 3자 간의 소통과 공식·비공식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집단탈출’을 성공시켰다. 일제강점기에 함남에서 조선인과 함께 항일노동운동을 전개했던 이소가야나 마쓰무라 같은 인물, 즉 일제 패망 전에는 ‘비국민(非國民)’이라며 비난받았던 이들의 경력과 인품이, 8.15 직후 귀환과정에서는 ‘일본민족을 위해 매우 소중한 존재’로 탈바꿈한 것이었다.⁴⁰⁾ 일본인의 무사 귀국이라는 최종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당장 귀국 전까지 조선 내에서 일본인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했다.

IV. 함흥일본인위원회의 활동

1. 일본인 구제사업 및 ‘부평 문제’ 해결 노력과 좌절

함흥일본인위원회의 활동을 정리해보면, 크게 다음의 다섯 방향에서 추진되고 실행되었다. 첫째는 귀환 전까지 재류일본인과 피난민의 생활난 해결을 위한 각종 구제활동, 둘째는 이에 선행되어야 할 일본인의 정치적 교양 즉 제국주의 사상을 제거하고 새로운 인간관과 세계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셋째는 집단피난민의 대량 소개(疏開)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평(富坪)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노력, 넷째는 ‘북선전재자위원회’를 조직 본격적으로 ‘집단탈출’을 통한 귀환을 추진하는 것, 다섯째는 새로운

40) 1972년 1월 27일 일본정부는 귀환 과정에서의 ‘공로’를 치하하여 이소가야 스에지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소가야는 이 표창장을 명예롭게 생각하여 걸어놓는 일은 평생 없을 것이라면서 ‘군국주의 일본’과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당시의 일본정부를 비판했다(磯谷季次(1980), p.239).

조선의 건설에 필요한 일본인 기술자들의 잔류 문제 해결 등이다.

이 모든 일들의 추진과정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조선인 각 기관과 소련군당국에 교섭하여 상호 납득할 만한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는 것이었다.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이러한 일들은 이소가야나 마쓰무라 등의 노력이 없었다면 거의 불가능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한창 귀환활동을 추진 중이던 1946년 이소가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종래의 정치 및 사상적 형편상 일본인위원회 간부의 의지가 충분히 상대에게 철저히 전달되지 않아 위원회의 중요한 일인(日人) 섭외 관계에서 자주 곤란한 문제에 봉착하였다. 일본인위원회 간부는 8월 15일 이전까지는 다수가 상당한 사회적 지위에 있던 자들이어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상대 각 기관의 감정이, 일반 일본인 특히 피난민에 대해서는 동정하면서도 결코 무조건적인 관대함을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다. 적어도 부평 문제 등을 전기로, 일본인 문제에 대한 조선인의 정당한 입장이 정치적으로 토의되고 정해지기까지는 보안부 관계자와 도위원회·시위원회 간부들의 일본인위원회에 대한 태도는 준엄했으며 때로는 냉담했다.

나와 마쓰무라 기시오는 온갖 곤란한 조건을 무릅쓰고 일반 재주자의 생존권 옹호와 피난민 구제에 고군분투하는 일본인위원회의 전위(前衛)가 되고 측위(側衛)가 되고 때로는 후위(後衛)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나는 다행이랄까, 일찍이 조선의 해방운동에 종사하여 전전(戰前) 및 전중(戰中)의 약 10년간 조선인 동지제군과 함께 함흥 및 경성서대문형무소에 구금되어 있었던 탓에 일본 항복 후 각 기관의 중요한 지위에 오른 인물들 가운데 많은 벗과 지인이 있었다. 따라서 일본인위원회와 조선 측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적 장벽을 중재하는 일에 책임이었으며 또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했다.⁴¹⁾

41) 磯谷季次(1946), pp.381~382.

함흥일본인위원회로 거듭난 후 그 내부에서는 먼저 간부들 스스로가 '새로운 정치적 자기교양'을 체득하려고 노력하였다. 또 조선 측 각 기관에 대해서는, 과거의 지도층은 거의 숙청당해 실제로 함흥지구에서 "미증유의 비극이 일어나는 한복판에 있는 것은 노동자·하급관리와 일반 부녀자·노인 등"으로서 이들은 전쟁의 피해자로서 충분히 동정 받을 만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⁴²⁾ 마쓰무라는 쌀 한 톨도 배급되지 않던 일본인을 위해 시 당국 등에 탄원서를 내어 미곡 150석을 받아내는 등 함흥일본인위원회로 개편된 후 식량·의류·취직·의료 등 구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한편 함흥 일대의 피난민과 소련 및 조선 측 사이에서 소통과 신뢰의 부족으로 벌어진 가장 끔찍한 비극은 바로 '부평 사건'이었는데, 함흥일본인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사건은 8.15 직후 집단피난민의 대거 함흥 유입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계기관이 이들을 대량 소개하는 정책을 취한 데서 발생하였다. 즉 소련군당국과 조선 측 기관이 협의하여 함흥의 집단피난민을 흥남(興南)에 3,410명, 오로(五老)에 약 1,000명, 부평에 3,282명의 이동을 강행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인데, 가장 상황이 열악했던 곳이 바로 부평이었기 때문에 흔히 '부평의 비극(또는 참상)'으로 불린다.

이소가야가 장진의 산속에서 함흥으로 내려와 세화회 간부들을 만난 후 가장 먼저 요청받은 '임무'도 바로 피난민을 부평의 육군병사로 이동시키려는 계획을 중지시켜달라는 것이었다. 1945년 11월 20일 함흥시인민위원회는 함흥일본인세화회에 "내일 저녁 발 기차로 함흥의 일본인 3,282명을 부평으로 이동하려 하니 즉시 준비하라"는 명을 내렸다. 하루 만에 준비를 마치고 3천여 명을 동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한 세화회에서는 이소가야에게 조선인 측을 설득하고 교섭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42) 위와 같음.

이 일이 단지 함흥시인민위원회의 결정이 아니라 도인민위원회나 소련군 당국이 개입된 일본인 소개 대책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 결코 쉽지 않다고 느꼈지만, 나서볼 수밖에 없었다. 옛 동지 문태화(文泰和)·이달진(李達進)·주인규 등과 함께 도용호 등을 찾아가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부평으로의 소개는 9월부터 계획된 일어서서 현실적으로는 이미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이 부평 집단피난민의 역사적 비극에 대해서는 이후 1946년 1월에 도검찰부 정보부장 이상북(李相北)이 부평의 일본인 생활실태를 상세히 조사한 후 인민위원회와 당 보안부, 일본인위원회, 소련군당국에 제출한 「부평이관 일본인 상태 조사보고서 및 의견서」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⁴³⁾ 이상북의 보고 후 그 비참한 실상이 알려지면서 각 기관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처음으로 진지하게 일본인 문제가 재검토” 되었고, 이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주식 배급량이 1일 1인 2흡에서 3흡으로 증가했으며, 다량의 소금에 절인 생선과 의류 1,300여 점이 지급되었다. 또 의료설비도 개선되었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해 차단되었던 외부와의 교통금지도 해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00여 명의 피난민 가운데 이미 12월에 372명, 1월에 528명이 사망한 상태였으며, 이후에도 2월에 252명, 3월에 191명, 4월에 34명 등으로 총 1,431명이 사망하였다. 도망자 400여 명을 제외하면 절반에 달하는 피난민이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1946년 5월 5일에는 이들 사망자에 대한 합동위령제가 진행되었다. 월별 사망자 수치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당국의 개선책이 급증해가는 사망자 수를 줄이는 효과는 거뒀지만, 너무 늦은 조치였던 것이다. 결국 이소가야의 표

43) 이 보고서는 森田芳夫(1964), pp.450~456에 수록되어 있다. 같은 내용을 이소가야가 자신의 회고록 『조선전쟁기』(1980)와 『우리 청춘의 조선』(1984)에 수록하였다. 이소가야는 이상북의 보고서를 “민족적 편향은 철저히 배제하고 사회민주주의를 목표로 하는 사람의 정치적·도덕적인 모럴과 사랑의 실천을 구한 내용”이라며 높이 평가했다(이소가야 스에지(1988), p.267).

현대로 “부평은 일본인에게 있어 북조선 최대의 묘장(墓場)이 되었던 것”이다.⁴⁴⁾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피난민뿐만 아니라 함흥재류 일본인의 생활도 점점 궁핍해져갔다. 수많은 병자의 발생은 물론,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매우 좁았다. 귀환단체의 노력으로 8.15 이전에 조선인만 이용하던 제혜병원(濟惠病院)이 일본인에게 개방되어 함흥일본인사회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12월부터 함흥일본인위원회가 이어받아 운영함). 이곳에서 소련군 군의관 페트로프(Петров)나⁴⁵⁾ 간호사들의 헌신적이고 전면적인 지원을 받아 일본인 환자의 구원이 가능해졌다. 이어서 주인규나 이상복 등의 노력으로 기존의 도립병원도 ‘일본인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떼게 되었으며, 부립 회춘병원(回春病院)도 일본인에게 개방되었다.⁴⁶⁾

2. 북선전재자위원회 조직과 ‘집단탈출’ 추진

1946년 봄이 되면서 함흥일본인위원회에서는 일본인의 귀환을 마냥 늦추고 있을 수만은 없으며 비공식적으로라도 ‘집단탈출’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그해 4월 1일 함흥일본인위원회와는 별도로 “외곽조직으로 그 잔무 정리와 일본 철수 후의 활동”을 위해 ‘북선전재자위원회’를 조직하고,⁴⁷⁾ 그동안 일본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효도 데쓰조가 위원장을 맡았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계획된 ‘집단탈출’을 마무리 짓고 남은 문제들을 처리하는 책임자로 이소가야가 이때

44) 이소가야 스에지(1988), pp.267~268.

45) 일본인을 돌보다 발진티푸스에 걸려 사망한 페트로프 군의관에 대해서는 귀환 후 다도코로 요시미(田所喜美)가 존경과 추모의 염을 담은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ベトロフ軍医少佐』, 講談社出版サービスセンター, 1982).

46) 『北鮮戰災現地報告書』(1946), p.315.

47) 森田芳夫(1964), p.588.

부터 그해 8월 말까지 함흥일본인위원회의 5-6차 위원장을 맡았다.⁴⁸⁾ 말하자면 함흥재류 일본인과 함흥지구 피난민의 무사 귀환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효도가 앞에서 끌고 이소가야가 뒤에서 마무리하는 모양새를 구상했던 것 같다.

〈표 5〉 북선전재자위원회의 현황

명칭	설립	지역	회장/대표	참고
북선전재자위원회	1946.4.1	함흥부	兵頭鉄蔵	집단탈출의 책임 조직 / 상호부조, 귀국 후 취업알선 및 공존, 일본정부에 대한 활동을 목적으로 조직

* 변은진(2018), p.213. 북선전재자위원회 간부진은 위의 〈표 4〉 참조.

북선전재자위원회는 본격적으로 ‘집단탈출’을 책임지는 조직이면서 동시에 귀국 후의 취업 알선 등 공존의 모색과 일본정부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조직이었다.⁴⁹⁾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 ‘집단탈출’의 추진과정을 보면 북선전재자위원회는 함흥뿐만 아니라 흥남·원산·성진·길주 등 38도선 이북 각지의 귀환단체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말하자면 “정보수집 및 타 지역을 포함한 북동조선(北東朝鮮)의 통일적 지도를 담당”하는 조직이었다.⁵⁰⁾

본격적으로 대규모 ‘집단탈출’을 추진한 것은 1946년 3월경부터였다. 그 이전에는 함북의 피난민들이 몇 차례 남하를 시도했다가 역송(逆送)되었을 뿐 실제로 ‘집단탈출’을 ‘성공’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다. 따라서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마쓰무라는 그해 2월에 서울로 가서 경성일본인사회회의 호즈미 신로쿠로(穂積真六郎) 회장 등과 38도선 이북 일본인의 남하에

48) 이소가야는 1946년 4월 2일에 “함흥일본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첫 출근”을 했다고 일기를 썼다(磯谷季次(1946), p.389).

49) 주 45)와 같음.

50) 松村義士男, 「東北線の脱出工作」(1947.11 집필), 森田芳夫(1980, 자료편3), pp.361-363.

대해 협의하고 자금 8만 엔과 의약품 등을 받아 함흥으로 돌아왔다. 마쓰무라에 따르면, “1월 상순 원산으로부터의 정보(수용소의 준비) 및 공산당도 당부로부터의 내시(內示)에 의해 2월 5일부터 정식 인양할 예정임을 알아차리고 그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그 기일을 넘기고도 구체화되지 않고 또 이후의 전망도 불투명”해졌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는 2월 14일에 혼자 소련군의 트럭에 편승하여 서울로 향했다. 그의 ‘경성행’의 주요 목적은, 남쪽에는 조선총독부가 남긴 자금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아 귀환자금을 요청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였다. 2월 19일 서울에 도착한 마쓰무라는 호즈미 등 세화회 간부진을 만나 38도선 이북 일본인의 남하에 대해 면담한 후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3월 5일에 함흥으로 돌아왔다.⁵¹⁾

다음날인 3월 6일부터 15일까지 마쓰무라 등은 서울에서의 협의내용에 기초해 비밀리에 탈출을 계획하여 먼저 ‘시험적으로 남하’를 감행하기로 했다.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해 3월 24일, 일본인 수송 문제와 남아있는 함흥 재주자 문제를 분리시킬 필요성에서 북선전재자위원회를 조직하고 조선인 측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후자를 이소가야가 전담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이소가야가 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나머지 간부들은 대부분 탈출계획 쪽으로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다.

탈출은 육로와 해상 양 방면에서 주로 어두운 밤을 이용해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만약 발각되면 되돌아와야 했기 때문이다.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부터는 보다 대규모로 행해졌다. 나중에는 부분적으로 남하가 합법화되기도 해서 기차의 이용도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거류자와 피난민을 어떻게 배분하여 언제 귀환시킬지 등은 전적으로 함흥일본

51) 마쓰무라는 경성행 과정과 관계 활동에 대해 날짜별로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위의 「東北線の脱出工作」이 그것인데, 森田芳夫(1980, 자료편3), pp.361~370에 수록되어 있다.

인위원회가 계획하고 조정하였으며, 모두 이를 따랐다. 함흥일본인위원회에서는 대부분 무일푼인 피난민의 이동 비용을,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함흥재류 탈출 희망자에게 부담시켜 함께 귀환시키는 방법 등을 적절히 구사하였다.

그렇다 해도 탈출 행위 자체는 여전히 ‘불법’이어서 많은 고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함흥역을 기점으로 귀국길에 올랐다고 해서 바로 일본으로 직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중간 중간마다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었다. 필요한 교통수단에서부터 생필품 문제도 있었고, 비록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발했다 해도 소련군 당국의 정책 변화로 갑자기 남하 금지 조치가 내려지거나 도중에 보안대에 저지당해 역송되는 경우도 생겼다. 예컨대 4월 18일에는 갑자기 소련군 당국의 이동금지 명령이 떨어져 발이 묶여버렸으며, 4월 24일에는 미처 준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바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오히려 일본인 측에서 연기해달라고 간청하기도 했다.⁵²⁾

1946년 3월 이소가야의 일기를 보면, 직접 귀환 행렬에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그가 이를 외곽에서 지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알 수 있다. 예컨대 탈출 감행 초기인 3월 15일자 일기는 이즈음부터 그가 조선 측 여러 기관들과 ‘귀환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해갔음을 보여준다. 그는 3월 12일경부터 계속 조선인 측과 만나 일본인 귀환 문제에 대해 협의했고, 15일에는 도위위원회 철도국장 송성관 등을 만나 일본인의 이동 및 식량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리고 3월 27일에는 탈출조가 통과하는 지역마다, 예컨대 안변의 문태화, 철원의 박용숙(朴龍熟), 연천의 부기남(夫己男) 앞으로 소개장을 지참하도록 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하자 3월 29일에는 직접 이달진·효도·마쓰무라와 함께 서호진(西湖津)으로 가서 토건조합 측에 일본인 이

52) 磯谷季次(1946), p.394.

송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곳 보안분소장을 맡고 있던 임중호(林鍾浩)를 만나 '탈출을 인정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인가' 등에 대해 논의한 후 결국 모른 척 눈감아주기로 하는 협상을 이끌어내기도 했다.⁵³⁾

그러다가 5월 9일 스쿠바(Скыва) 사령관이 일본인의 남하를 '묵인'하기로 결정하여 어느 정도 합법적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귀환활동에도 약간의 탄력이 붙었던 것 같다. 이동허가 명령을 받고 임시차량 등이 제공되기도 했다. 물론 미·소 당국 간의 관계 등으로 인해 이동금지 명령이 떨어지거나 남쪽에서 미군정당국이 송환을 중지시킨 일도 여전히 발생했다. 하지만 3~4월에 비해 5월에는 비교적 순조롭게 귀환활동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하여 소련군당국이 공식 인양을 발표하고 미·소간의 최종 합의를 거친 1946년 말 이전인 3~6월 사이에 '집단탈출'이라는 방식으로 함경남북도의 일본인과 피난민 다수가 선박 편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공식 인양 발표는 사실상 그때까지 탈출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일본인에 대한 조치였다고 보는 게 맞다. 그 이전의 '집단탈출' 자체는 원칙적으로 비합법적인 일이었지만 실제로는 조선 및 소련 측의 관계당국, 특히 마쓰무라나 이소가야가 참여한 조선공산당 함흥시당부의 '암묵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말하자면 함흥일본인위원회와 북선전재자위원회를 중심으로 1946년 전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된 '집단탈출'은 '반(半)합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53) 磯谷季次(1980), pp.172~178. 이소가야 자신은 공식 인양이 발표된 후인 1946년 11월 말에 부인 스마코와 함께 귀환 길에 올라 1947년 1월 초에야 19년 만에 일본 땅을 밟았다.

3. 일본인 기술자 잔류를 통한 신조선 건설 지원

함흥일본인위원회에서는 민간인 다수를 귀환시키는 대신 일본인 기술자를 일정기간 잔류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조선 및 소련 측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1930년대 이후 일제의 병참기지화 정책 속에서 들어선 한반도 북부의 중화학 공업시설은 기본적으로 숙련노동자는 일본인, 비숙련노동자는 조선인이라는 이중 구조 속에서 유지되었다. 따라서 일본인 기술자가 갑자기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공업시설은 가동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소련에서 기술자가 파견되기도 했으나, 일정한 기간 동안은 기존 일본인 노동자의 도움이 절실했다.

일본질소비료공장이 있던 흥남의 경우를 보면, 8.15 직후 과거 일본인 소유 공장들에서는 일본인 기술자를 비롯한 노동자·회사원 등이 대부분 추방되었다. 흥남공장은 8월 26일 자로 함경남도인민위원회가 접수하여 ‘일본인 종업원 입장금지’라는 공지가 붙여지고 ‘흥남인민공장’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공장 내 기술인력의 부족 사태가 촉발되었다. 공장의 상층부를 차지했던 일본인 기술자의 도움 없이는 원활한 공장 가동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앞둔 사회적 분위기에서 조선 측이 과거 지배자의 능력과 기술을 ‘활용’한다는 것은 좀처럼 어려운 판단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현실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흥남공장에서도 우수한 일본인 기술자를 재기용하여 생산력을 향상시킨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소련군사령부 정치고문이었던 발라스노프(Баласанов)였다. 그는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조선인이 별로 없어서 소련 기술자의 도입도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일본인 기술자의 도움 없이는 38도선 이북의 산업재건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펼쳤다. 결국 1945년 11월 말부터 일본인 기술자 16명이 흥남인민공장 지배인 직속 조사기획부에 고용

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⁵⁴⁾

일본인 사이에서도 기술자 잔류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같지 않아서, 새로운 국가 건설에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던 반면, 기술자 지원은 어디까지나 귀국 이전 생계유지를 위한 방편일 뿐이라는 입장도 있었다. 전자는 종전 이전에 흥남공장 등에 다니다가 전후에 흥남일본인세화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무나카타 에이지(宗像英二) 등의 입장이었다. 후자는 흥남공장의 본공공장장으로 일하다가 흥남일본인세화회 고문 및 흥남일본인거류민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카구치 도쿠조(坂口徳藏) 등의 입장인데, 실제로는 이 견해가 대다수 일본인 기술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⁵⁵⁾

일본인 기술자 잔류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흥일본인위원회에서는 이소가야나 마쓰무라를 중심으로 일찍부터 조선-소련-일본 각 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소가야는 위원장을 맡기 전인 1946년 1월경부터 이 문제에 주력해왔다고 한다.⁵⁶⁾ 그는 위원회 측에 일본인 기술자들의 전문부회(專門部會)를 결성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였다. 조선 측 각 기관에서도 일본인 기술자의 잔류를 강력히 요청하여, 결국 그해 1월 30일 함흥일본인위원회 내에 ‘일본인 기술자 전문부회’가 조직되었다. 전기 145명, 기계 141명, 토목 108명, 건축 218명, 광산 16명, 야금 3명, 응용화학 5명, 조선 1명, 양조 3명, 축산 22명, 수산 11명, 임업 49명, 농업 48명, 약학 18명, 의학 65명, 요업 12명 등 총 87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이소가야는 ‘조선공산당 함흥시당부 일본인부’의 이름으로 조선

54) 김재용, 「재북한 일본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북한의 일본인 기술자 정책 (1945~1950)」, 『동북아역사논총』 44, 2014, pp.232~234.

55) 김재용(2014), p.238.

56) 磯谷季次(1980), p.180. 이소가야는 “기술자 문제는 탈출과 함께 내가 가장 힘을 기울인 문제”라면서, 회고록 『조선종전기』의 제16장(경제재건과 일본인 기술자)에 상세히 기록했다.

측 각 기관에 다음의 「일본인위원회 전문기술부회 조직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를 보내 기술자의 동원을 강력히 주장하였다.⁵⁷⁾

해방된 조선의 당면 중요과제는 생산증강이며, 특히 조선의 공업화 문제이다. 조선의 공업화는 조선 일국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가진 문화재에 대한 하나의 민주주의적인 플러스이며, 동시에 인류문화의 생성 발전에 대한 빛나는 추진력으로서 세계적인 의의를 갖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조선의 새로운 공업화 문제를 살펴볼 때, 특히 기술·지식에 대해서는 국경 혹은 민족의 관념이나 의식을 초월하고, 적어도 조선의 공업화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동인·요소는 모두 이용해야 한다.

조선 공업화 문제에서 기술적 기본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오로지 기술자에 속하는 과제이다. (중략 원문) 더구나 이들 기술자는 현재 그들이 제국주의 치하에서 제국주의자의 전쟁정책에 협력했던 이상의 열의를 가지고 조선의 재건에 정신 협력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그들은 현재 일본으로 돌아가도 기술자로 자기의 힘을 다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한결같이, 패전 후라 해도 자신들의 사명은 좀 더 조선에 남아있는 것임을 자각하고 있다. 그들은 어떠한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지 않으며 또 부당한 경제적 야망도 갖고 있지 않음은 그들 스스로 의지를 표한 바와 같이 명백하다. 우리는 조선의 사회건설에 중대 기여를 수행할 이들 일본인 기술자의 전체 능력과 역량을 조선에서 공업건설에 동원 이용할 것을 조선 지도자 앞에 강력히 요청한다.

그들이 오늘까지 수행한 모든 연구사항의 정리 및 그 계속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산업조직을 위해! 또 조업을 중지시킨 여러 광산·공장에서의 기업재편성을 위해! 수송문제 해결을 위해! 또 신조선이 요구한 모든 학문·기술을 위해, 그들의 혼까지 총동원하기를 요구한다.

57) 磯谷季次(1980), pp.181~182.

신조선의 지도자가 이를 요구한다면 그들은 아끼지 않을 것이다. 관련 요구에 힘쓰고 더욱 촉구하여 일본인위원회는 각 당국의 명령이 떨어지면, 기술자들을 조직할 것이다. 따라서 당국 및 조선 신사회 건설의 일반 지도자는 이 일본인 기술자의 의도를 잘 살펴서 모쪼록 협력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희망한다. 이상.

인민위원회 각급기관 귀중

공산당 각급기관 귀중

기타 각급기관 귀중

조선공산당 함흥시당부 일본인부

위 글을 보면 대다수의 일본인 기술자가 사실상 식민지 조선의 군수 공장에서 일체의 침략전쟁을 위해 일했다는 사실을 이소가야 스스로 강하게 의식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때문에 이들이 현재는 제국주의 일본이 아니라 조선의 재건에 노력하겠다는 마음가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선 및 소련 측에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물론 위 전문부회의 성원들이 모두 자신의 전문분야에 동원된 것은 아니었으며, 대부분 고용되지 않은 채 인양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이들과 그 가족에 대한 대우 문제 등도 쉽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이와 같이 노력한 결과, 충분한 인원은 아니었다 해도 흥남공장에는 일정한 인원이 공장의 재건에 투입될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무나카타 에이지 등의 입장에 따르면, 일본인 기술자 내에는 ‘기술을 고안해내는 유형의 기술자’와 ‘공장의 가동에 숙달된 기술자’ 두 종류가 있었다. 당장 흥남공장의 가동을 위해 필요한 인원은 후자였지만 새로운 조선의 건설을 위해서는 전자도 반드시 필요했다. 그런데 실제로 흥남공장에서는 기술자들 내에서 귀환과 잔류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했고 대부

분은 빠른 귀환을 희망했기 때문에, 결국 5월 27일에는 당시 흥남인민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일본인 노동자 전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여 최종 잔류자와 귀환자를 정하였다.⁵⁸⁾

8월 1일에는 김일성(金日成) 위원장이 직접 날인한 「북선(北鮮) 기술자 징용령」이 발령되었고, 8월 7일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기술자 확보에 관한 결정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조선건국에 진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누구든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 종사하도록 하였다.⁵⁹⁾ 이로써 흥남공장을 비롯한 38도선 이북지역의 일본인 기술자 잔류는 완전히 공식화되었지만, 각종 사안을 둘러싼 공장 측과의 대립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조선 측에서 철도관계 기술자의 잔류도 강력히 요망하여, 우여곡절 끝에 그들도 일정기간 잔류하여 교통운수의 재건에 협력하였다. 『쉬띠꼬프 일기』에 의하면, 1946년 10월 현재 38도선 이북에 잔류한 일본인 기술자는 약 1,200명에 달했다고 한다.⁶⁰⁾

이와 같이 함흥일본인위원회를 이끌었던 이소가야 등은 산업기반 건설과 재건 없이는 조선인 동지들이 새로운 조국을 안정적이고 총체적으로 건설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 아래 현실적으로 귀환단체에서 조선인 측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아내는 주요한 협상카드로 ‘기술자 잔류’ 문제를 활용하였다. 일본인 기술자의 동원과 잔류는 조선인과 일본인 양측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

58) 鎌田正二, 『北鮮の日本人苦難記-日窒興南工場の最後』, 時事通信社, 1970, pp.237~241. 투표 결과 잔류자 대표로 조사기획부 무나카타 에이지, 공무부(工務部) 곤요시로(昆吉郎), 연구과 오시마 미키요시(大島幹義), 흥남공장 가토 쓰네오(加藤恒夫), 본공공장 와타나베 주사쿠(渡邊忠作)가 결정되었다.

59) 北山恒(1947), 『北鮮日本人苦難史』, 1947.3(私家版), p.242; 김재웅(2014), pp.234~235.

60) 이후 1947년 7월부터 1948년 2월까지의 일본인 편지를 몰수해 정보를 수집한 미군정보기구 G-2는 잔류한 일본인 기술자 수를 552명으로 추정했다고 한다(김재웅(2014), p.234).

었던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에서 8.15 직후 38도선 이북 일본인의 귀환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먼저 함흥지역의 귀환단체, 특히 함흥일본인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피난민의 다수가 밀려들었고 실제 민간인 사망자 수도 가장 많았던 함흥은 흔히 ‘고난의 탈출’로만 알려진 38도선 이북 일본인의 귀환 문제를 둘러싼 여러 층위들을 검토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서, 실제로 일본인 사회 내부의 경험과 인식상의 다양한 편차들, 또 조선 및 소련 측과의 관계 등 복잡한 문제를 비교적 적절하게 해결해가면서 ‘집단탈출’까지 ‘성공’시킨 지역이었다. 본론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8.15 직후 함흥에서 처음 조직된 귀환단체인 ‘함흥일본인세화회’는 구성이나 조직 형태면에서 식민지 조선의 사회관계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성격으로는 38도선 이북의 달라진 정세에 대응할 수가 없었기에, 1945년 12월 3일 세화회는 ‘함흥일본인위원회’로 전면 개조되었다. 그리고 일제패망 이전에 조선인과 동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이소가야 스에지나 마쓰무라 기시오 같은 인물이 전면에 나서서 귀환단체를 주도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들은 ‘조선공산당 함흥시당부’ 내에 ‘일본인부’를 조직하여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철저한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과거 일본의 침략주의 및 제국주의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독립한 조선의 새로운 국가 건설을 적극 지지하는 방향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산당이나 인민위원회 등 조선 측 관계기관이나 소련군 당국과의 소통과 협력에 주력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귀환 전까지 재류일본인과 피난민의 생활난 해결을 위한 각종 구제활동, 집단피난민의 대량 소개(疏開) 과정에서 발생한 ‘부평 문제’ 등의 일정한 해결, ‘북선전재자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탈출’ 방식의 귀환 추진 등의 당면과제를 풀어나갔다. 그 결과 소련군당국이 공식 인양을 발표하고 미·소간의 최종 합의를 거친 1946년 말 이전인 3~6월 사이에 함경남북도의 일본인과 피난민 다수가 귀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비합법적인 탈출은 조선 및 소련 측 관계당국의 ‘암묵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이 시기 함흥일본인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된 ‘집단탈출’은 사실상 ‘반(半)합법적’인 성격을 띤 것이었다.

한편 함흥일본인위원회에서는 민간인 다수를 귀환시키는 대신 일본인 기술자를 일정기간 잔류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조선 및 소련 측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이소가야나 마쓰무라 등은 산업기반 건설과 재건 없이는 조선인 동지들이 새로운 조국을 안정적이고 총체적으로 건설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현실적으로 귀환단체에서 조선인 측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아내는 주요한 협상카드로 ‘기술자 잔류’ 문제를 활용하였다. 일본인 기술자의 동원과 잔류는 조선인과 일본인 양측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19년 5월 14일

논문 심사일 : 2019년 6월 8일

게재 확정일 : 2019년 6월 24일

참고문헌

- 鎌田正二, 『北鮮の日本人苦難記—日窒興南工場の最後』, 時事通信社, 1970.
- 磯谷季次, 『朝鮮終戦記』, 未來社, 1980.
- 磯谷季次, 『わが青春の朝鮮』, 影書房, 1984.
- 김경남, 「재조선 일본인들의 귀환과 전후의 한국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21, 2008.
- 김재웅, 「재북한 일본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북한의 일본인 기술자 정책(1945~1950)」, 『동북아역사논총』 44, 2014.
- 변은진, 「재조일본인 노동자 이소가야 스에지(磯谷季次)의 체험을 통해 본 8.15와 귀환의 기억」, 『아세아연구』 제60권 2호, 2017.
- 변은진, 「8.15 직후 38도선 이북의 일본인 귀환단체 및 간부진 현황」, 『韓日關係史研究』 60, 2018.
- 北山恒, 『北鮮日本人苦難史』, 1947.3(私家版).
-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 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巖南堂書店, 1964.
-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 資料編 第1卷 日本通治の終焉』, 巖南堂書店, 1979.
-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 資料編 第3卷 北朝鮮地域日本人の引揚』, 巖南堂書店, 1980.
- 柴田健三, 「興南赴任から積水転任まで三十年間の日本窒素生活を顧みて」, 『日本窒素史への証言』 13, 日本窒素史への証言刊行委員会, 1981.
- 이소가야 스에지, 『우리 청춘의 조선』, 사계절, 1988.
- 이승환, 「재조 귀환 일본인 피해자 아이덴티티 형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10.
- 이연식, 「解放 直後 38以北 日本人의 居留環境 變化」, 『韓日民族問題研究』 14, 2008.
- 이연식, 『解放 後 韓半島 居住 日本人 歸還에 關한 研究』,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2009.
- 이연식, 「전후 일본의 히키아게(引揚) 담론 구조—해외 귀환자의 초기 정착 과정에 나타난 담론의 균열과 유포」, 『일본사상』 24, 2013.
- 田所喜美, 『バトロフ軍医少佐』, 講談社出版サービスセンター, 1982.
- 최영호, 『일본인 세화회』, 논형, 2013.
- 최영호, 「군산거주 일본인의 귀환과정에 나타난 지역적 특성—세화회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26, 2014.

Abstract

Activities of Organization for Repatriation of the Japanese in Hamheung after 8·15

Eun-Jin Byun

This article is a summary of Organizations for Repatriation of the Japanese in Hamheung, especially Hamheung Japanese Committee, in order to understand the activities for repatriation of Japanese settlers in the north of the 38th parallel after the collapse of Japan in 1945. 'Hamheung Japanese Sewakai', which was organized for the first time in Hamheung, reflected the social relations of the colonial Korea in its composition. This nationalistic nature was unable to correspond to the changing situation in the north of the 38th parallel, and on December 3, 1945, Hamheung Japanese Sewakai was completely renovated into the 'Hamheung Japanese Committee'. In addition, Isogaya-Sueji and Matsumura-Gisio who had formed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Korean people before the collapse of Japan, made a new moment of Hamheung Japanese Committee activities. Based on mutual trust, they focused on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of Joseon and the Soviet Union. Through these efforts, it is possible to solve various problems such as various relief activities for residence of Japanese and refugees before returning to Japan, efforts to solve problems of Group refugees such as 'bupyeong problem', and the return of 'Group escape' method. As a result, a large number of Japanese and refugees from Hamkyung Province could return to Japan between March and June 1946,

before the announcement of official Repatriation. This illegal escape was possible because of the 'implicit' and 'active' support of the Joseon and Soviet authorities. Therefore, the 'Group escape' by the Hamheung Japanese Committee at this time was semi-legal in fact. On the other hand, they have used the problem of 'remaining of Japanese engineers' as a negotiation card to receive various supports under the judgment that it is impossible for Korean comrades to construct a new Joseon without industrial-based reconstruction. This is a win-win for both Koreans and Japanese.

Key words

Hamheung Japanese Committee, Hamheung Japanese Sewakai, Isogaya-Sueji, Matsumura-Gisio, 'Group escape', Organization for Repatriation of the Japanese, Hikiagesha